최영식 교수,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 수상

단순히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환자를 한 사람으로 대하며 필요를 이해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대한민국 부산의 최영식 교수는 교육, 의료 혁신, 연구, 자원봉사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평생을 헌신해 왔습니다.

최 교수는 인도주의 봉사와 세상을 위한 의학적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2021년 6월 28일 제 103차 국제대회에서 방송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협회 최고의 영예인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은 인도주의 활동의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며 [국제재단](#)에서 US\$250,000를 부상으로 전달합니다. 최 교수는 테레사 수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니스 무퀘게 박사 등 유명 인사들과 나란히 역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종열 국제회장은 특별 시상식에서 최 교수에게 상을 수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140만 라이온을 대신하여 이 상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선행은 라이온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교수님이 펼쳐 오신 소중한 인도주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최영식 교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1951년 한국 전쟁 중에 복음병원을 설립한 한국의 외과의사이자 교육자, 박애주의자인 장기려 박사를 알게 되면서부터 인도적 봉사에 대한 열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최 교수는 1996년 인도 방갈로르에 파견된 의료팀의 일원으로 의료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는 필리핀의 외딴 지역인 투게가라오 지역으로 파견되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료 봉사 중 만난 많은 갑상선 환자들을 치료한 후 투게가라오 지역의 향토 음식과 갑상선 질환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최 교수의 지휘 아래 2015년과 2016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각각 해외 검진센터를 열어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알마티의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더 효율적인 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음병원으로 초청하여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 최영식 교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겸 복음병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최 교수의 지도 아래 의료팀은 2018년과 2019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전, 최

교수는 원격 의료의 장점을 인식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치료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2020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하노이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원격진료센터를 개소해 의료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최영식 교수는 의학 연구 분야에서 한국 최초로 ‘갑상선 결절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세포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논문을 *대한내분비학회지*에 게재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결절에만 초음파 검사 대신 세침 검사를 적용했던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연수 강의를 통해 갑상선 결절 진단 시 초음파 유도 세침 검사를 전국적으로 보편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같은 의학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내과학회 및 대한갑상선학회 학술상, 부산의사회 의료경진대회 학술상, 2019년 제 12회 암 예방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등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봉사, 교육,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 지역사회와 지구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최 교수는 말했습니다.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상자 명단은 웹사이트 <https://www.lionsclubs.org/humanitarian-winners> 에서 확인하세요.